

敬菴 盧景任의 「月幕山水記」와 그 장소성

申斗煥*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경암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3. 경암의 「月幕山水記」와 그 장소성 분석
4. 결론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살았던 敬菴 盧景任(1569~1620)의 「月幕山水記」와 그 장소성을 연구한 논문이다. 이 작품은 『敬菴先生文集』 卷2에 들어 있으며, 그가 1607년 6월에 영해부사로 부임하여 1611년까지 근무하던 시절에 월막의 산수를 유람하고 쓴 것이다. 「월막산수기」는 지금의 경북 영덕군의 팔각산과 옥계구곡을 유람하고 지은 기문이다. 이 기문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명소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곳곳에 최초로 붙인 점들은 그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학의 재능이 드러났으며 여헌 장현광과 서애 유성룡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문학수업을 하였다. 그의 문집에는 산수를 유람하고 지은 기문들이 여러 편 들어 있다. 그가 어려서부터 공부한 성리학은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의 「월막산수기」를 분석한 결과 그 경관묘사가 뛰어나고 아름다워 간과할 수 없는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그의 문체는 이름답고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질박하며 온유둔후한 문예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산수유기 전반에는 주자의 무이구곡의 경관이 인식되어 있었으며 주자처럼 시가로 강호를 구가하며 성리학적 학문수양에 전념하려는 강호가도가 발견된다. 이 논문은 새롭게 발견된 「월막산수기」를 바탕으로 관광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경북 영덕의 팔각산과 옥계구곡의 장소성을 조명한 것이다.

핵심어 敬菴 盧景任, 「月幕山水記」, 장소성, 성리학, 강호가도, 팔각산, 옥계, 경북 영덕.

1. 문제의 제기

경암 노경임에게 월막의 산수는 어떤 의미였을까?

영국의 지리학자 에드워드 랠프(Edward Relph)는 어떤 지리적·물리적 공간이든 인간이 체험하고 거기에 의미를 붙일 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서에 유성룡으로부터 ‘文章之才’로 극찬을 받았던 敬菴 盧景任(1569~1620)은 유난히 산수를 좋아하는 벽이 있었다. 그의 문집에는 「금강산기」를 비롯한 많은 산수유기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산수유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 새로 발견한 그의 「월막산수기」를 일람해 본 결과, 경관묘사와 문체가 아름답고 경이로워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정황이 있었다. 또 곳곳에 이름을 붙이면서 성리학적 사상과 전설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한 점에서 그 장소성이 부각된 점도 예사롭지가 않다.

이곳은 여러 가지로 고증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경북 영덕의 팔각산과 옥계구곡으로 판명되었다.

이 산수의 공간에 대한 유람을 바탕으로 곳곳에 이름과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며 노경임은 꼼꼼히 기문을 남겼다. 이 기록이 있는 것을 모르고 후

대의 기록들만 참고하여 그 명칭과 유래 등을 잘못 소개하고 있어 그 장소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역사 속에 묻혀있는 선비들과 기록들을 발굴하여 새롭게 드러내는 일은 후세 학자로서는 멈출 수 없는 일이다. 그 명칭의 유래나 경관을 체험한 인물들의 장소에 대한 정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기록이 지금에 새롭게 발견되어 그 장소성과 장소감은 이들을 좀 더 깊고 좀 더 입체적인 조명을 가능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문화콘텐츠 상에서 잘못 조명되고 있는 팔각산과 옥계구곡의 장소성을 수정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이 작품은 『敬菴先生文集』 卷2에 들어 있으며, 그가 1607년 6월에 영해부사로 부임하여 1611년까지 5년 동안 근무하며 틈틈이 월막의 산수를 유람하고 쓴 것이다.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산수를 찾아본 결과 현재 경북 영덕의 팔각산과 옥계구곡이었다. 그러나 이 산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노경임의 「월막산수기」의 장소성과 장소감은 묻혀버리고 없고 지금 현재는 다소 황망할 정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이 산수에 대한 장소성에 대한 답문이 흘러가고 있어 안타까운 느낌이 든다.

노경임의 「월막산수기」 이것은 이 산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새로운 발견이다. 이것은 우리 산수유기의 걸작이자 강호가도이며 산수문예의 극치이다.

이 산수기가 새로 발견됨으로써 이 산에 대한 명칭과 유래를 다시금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 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과 경관에 대한 풍부한 묘사가 이 산의 장소성과 장소감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산수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산수의 최초 이름은 경암 노경임에 의해 최초로 옥계의 산수로 불려졌고 여러 곳의 뛰어난 경관을 극찬하면서 격조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곳곳에 지어 붙였다. 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이 산수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며 이 산속에 서당을 지었고, 바위에

글자를 새겨놓기까지 했는데도 지금은 그 이름조차 없어지고 이 사람의 흔적은 지워지고 없는 채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이곳이 팔각산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면서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들었던 것도 하지만 노경임의 문집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지금까지 이 『월막산수기』는 연구된 적이 없으며 학계에 처음으로 등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산수유기의 걸작으로 꼽히는 『월막산수기』를 그 장소성에 입각하여 상세하게 고찰하고 분석하여 그의 작가적인 면모와 그의 문학적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경북 영덕의 옥계와 팔각산에 대한 자연미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2. 경암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敬菴 盧景任이 살았던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까지는 士禍와 임진왜란으로 얼룩진 격변기였다. 이 시기는 성리학이 팽배하여 朝鮮의 宣祖 시절에 정치는 크게 빛나고 뛰어난 인재는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대사화를 거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던 사람들의 정치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목릉성세로 일컬어지는 문치주의의 절정을 이루던 시기이다. 그러나 성리학을 기반으로 사림이 성장하면서 사림의 분화가 촉진되고 봉당이 형성되어 당파싸움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미증유의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사림의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고, 사림들은 이 와중에도 군심을 바로잡고 절의를 강조하며 산수 간에 처하여 修己治人과 憂國愛民의 길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었다. 성리학이 확산되면서 穆陵盛世의 조선학계는 우리 역사상 최고의 학문수준을 구가하고 있었다.

한국의 도남 조윤제 선생은 이 시기에 주목하여 “조선 중종에서 선조 임

진년에 이르는 약 90년간의 시기에 주목하여 이 시대의 작가 중에는 사회로 어지러워진 세상을 벗어나 자연의 진경에 몰입하여 강호의 경치에 묻혀 지내려는 새로운 작가군이 일어나고 있어 이 시대를 자연미의 발견시대"라고 하며 강호가도로 규정한 적이 있다.¹⁾ 조선의 16세기는 성리학적 문학관이 팽배해져 가면서 강호가도의 자연미를 발견해 가던 시대였다.

이 시기 조선 사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예술적인 장르들은 성리의 미의식을 함의하여 생겨나기 시작한다. 주자의 강호가도의 미의식은 조선중기의 정신적인 지주로써 확산되어 갔다. 조선의 모든 예술 테마들이 민족적인 것과 함께 성리의 미의식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사대부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련의 시가 예술은 성리의 미의식을 태동시켰으며 이 이후 조선후기까지 성리미학²⁾은 우리문학사에 큰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노경임은 서애 유성룡의 제자로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591년에 출사하여 임진왜란의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도하고 겪었으며, 국가의 존망을 다투는 누란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골쇄신 하였다. 노경임은 임진왜란 당시에 조정의 중심에서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유성룡·권율·이원익 등 기라성 같은 선배관료들과 함께 조정에서 전장을 논하며 청춘을 불태웠고, 전후에는 전쟁으로 얼룩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체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공로가 있는 우국애민의 선비이자 학자 겸 문인이었다.

1) 조운제, 『조선시가지사강』, 동광당서점, 1939, 232~235쪽.

2) 우주의 섭리를 추구하고 자연을 관조하며 생태계를 관찰하여 인간의 심성과 연결 짓는 성리학적인 세계관의 표출에서 그 미학을 찾아내 체계화하는 예술적 행위를 성리미학이라고 한다. 성리학적인 형상사유와 외물인식을 통하여 산수나 자연경관을 음영하며 '蕩滌人慾'하는 심성수양의 기틀로 삼는 문학이나 성리학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예술로 형상화한 다른 예술작품도 모두 성리미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신두환, 「한훤당 김굉필의 시문에 나타난 성리미학 탐색」, 『한문교육연구』, 23집, 한문교육연구, 2004, 참조.

경암 노경임은 임진왜란이 터지자 고향 선산으로 돌아와 지역 유림의 종장으로 의병을 소집하고 왜군과 싸웠던 의병장이었으며, 정유재란이 터지자 또다시 의병을 모아 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국애민의 선구자로 활약했던 경암 노경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처럼 임진왜란 시절 공을 세우고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선비들을 발굴하여 새롭게 드러내는 일은 후세 학자로서는 멈출 수 없는 일이다. 임진왜란 중에 의병을 소집하고 왜군과 싸운 선비들의 우국애민 의식은 진실로 후세에 천양할 가치가 있다.

임진왜란을 거친 노경임의 삶과 학문적 경향, 그리고 그의 문학세계는 당대의 역사를 조명하는 중요한 시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노경임의 자는 弘仲, 호는 敬菴이다. 본관은 安康이고, 세거지는 경상북도 선산 문동리이다.

그의 고조는 盧紹宗이며, 고조모는 인천 이씨로 李完圭의 딸이다. 증조는 盧縉이며 寒暄堂 金宏弼의 제자이고 忠佐衛中部將을 지냈다. 할아버지는 동래교수 盧希軾이다. 아버지는 성균관 진사 盧守誠이다. 학행으로 이름이 났으며 호는 松庵이다. 前配는 報恩 李氏요, 後配는 玉山 張氏로 贈資憲大夫 吏曹判書 휘 烈의 따님이시고 여헌 장현광의 누이다. 그는 아버지 노수함과 어머니 옥산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8형제 중 여섯째 아들로 1569년 11월 2일, 善山府 文洞里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특이한 기질이 있으므로 松庵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는 반드시 우리 문호를 크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경암은 유아기부터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 유가의 학문적 풍습과 문학수업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는 5세(1573)의 어린나이에 부친을 잃었다. 그는 외삼촌인 旅軒 張顯光에게 문학수업을 받으며 학문하는 방법과 유가적인 법도를 듣고 성리학에 뜻을 두기로 굳게 맹서하였다. 그 뜻을 이루려고 성장하여서는 西厓 柳成龍에게 수학하였다.

일찍이 듣기를, 문충공 서애 유성룡 선생이 문형을 맡았을 때에 시험을 주관하여 策一道³⁾를 얻고서 말하기를 “누군지 모르지만 문장의 천재로 다. 이것을 서당에 비치해 두고서 이것으로 하여금 문장 수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서 시험지를 열어보니 바로 경암 노경임이었다고 한다. 선생은 이때에 청년으로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다. 문충공 서애 유성룡이 그 형의 자식으로 처를 삼게 하고서 그를 몹시 아끼고 중하게 생각했다고 한다.⁴⁾ 이렇듯 경암은 뛰어난 문학적 자질을 보이고 있었다.

이 당시는 조선의 학문이 최고로 발달한 시기로 퇴계와 율곡이 이루어 놓은 성리학이 무르익는 시기였다. 문학으로도 한학사대가인 월사 이정구·상촌 신희·계곡 장유·택당 이식이 활약하던 시기로 이른바 목릉성세로 불리던 조선의 르네상스 문예부흥기였다.

그는 23세(1591년, 선조 24년)에 別試文科에 나아가 丙科로 급제하여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校書館에 근무하였다. 그리고 24세(1592)에 豐山柳氏 참판 柳雲龍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리하여 스승이던 서애 유성룡과는 처삼촌의 관계가 되었다. 서애는 이 당시에 우의정의 벼슬에 나아가고 있었다.

그가 벼슬에 나아가 채 적응하기도 전에 미증유의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그는 고향 선산으로 돌아와 의병을 소집하고 왜군에 대항하였다. 이때 金誠一이 경상좌도 관찰사에서 경상우도 관찰사가 되자, 그는 김성일의 지시를 받고 경상우도 의병장들을 모았다(『亂中雜錄』 권2). 의병들과 관군은 연합하여 왜군의 복상을 저지하였다.

3) 丁若鏞, 『經世遺表』 제15권 春官修制 科擧之規 1 : 初場에는 經義(경서의 뜻을 해설하는 것) 一道, 四書義(사서의 뜻을 해설하는 것) 일도이고, 2장에는 論 일도, 誥·表·箋·內科 일도이며, …… 홍무 17년 갑자년 봄에 과거의 成式(확정된 법식)을 반포하여 시행했는데, …… 에는 策一道를 하여, 程式에 합격한 자는 10일 후에 騎·射·書·算·律 다섯 가지를 시험했다.
道는 제목으로 한편을 말한다.

4) 『경암집』 권1, 「敬菴先生集序(李光庭)」.

그는 25세(1593)에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 승문원 정자가 되었으며 이어 저작박사가 되었다. 26세(1594) 여름에 공조 좌랑이 되었다가 겨울에는 병조 좌랑이 되었다. 11월에는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이렇게 벼슬이 빠르게 전진되는 것은 임진왜란으로 조정이 혼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2월에는 사간원 정언으로 왜군과 싸워 패하고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前 體察使 尹斗壽의 파직을 청하였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정언 盧景任이 아뢰기를, “전 체찰사 윤두수는 대신이 되어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패한 일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으니, 파직을 청한 것도 未減을 따른 것입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는 혹 모를 수도 있는 일이다. 대신을 어찌 가볍게 파직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⁵⁾

노경임은 강경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당파싸움은 전시에든 그 영향이 쉽게 가지지 않았다. 노경임은 당파가 서에 유성룡과 맥을 같이하는 남인 계열로 공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파를 떠나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정의 혼란을 틈타 헤이해져 가던 전시의 기강을 엄격하게 바로 잡으려는 관료의 임무에 충실한 장면이 드러나고 있다.

정언 盧景任은 아뢰기를, “불행하게도 背君忘國한 사람이 있으니, 참혹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두면 천하의 공론이 있고 한 나라를 두면 한 나라의 공론이 있으니, 임금도 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노경임이 아뢰기를, “군신의 대의로 볼 때 죄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5) 『조선왕조실록』, 선조 27년, 1595년 12월 1일 조항 참조.

이때 서에 유성룡도 같이 배석하고 있었다.⁶⁾ 노경임은 서애의 비호 아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았다.

27세(1595) 4월,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가, 예조좌랑이 되었다. 7월, 侍講院 司書로서 江原道 巡按御史가 되었다. 그는 벼슬에 나가기에 앞서 賢邪의 분별 등 ‘十事’를 아뢰는 상소를 올렸다. 狀啓를 올려, 왜적에게 잡혀 갔다 탈출해온 조선인을 왜구로 간주하고 섬멸한 三陟 府使 洪仁傑을 논계하였다. 노경임이 맡은 직분의 역할을 보면 상소와 장계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나 그의 문집에는 수습되지 못한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강원도 巡按御史 盧景任이 장계하기를, “신이 정선에서 강릉으로 갈 때에 삼척 부사 洪仁傑과 同浦僉使 朴臧 등이 치보하였는데 ‘왜선 1척이 삼척부 북면 바닷가에 정박하였으므로 군대를 풀어 포위하여 모두 붙잡았다.’고 하였습시다. 신이 처음에는 그 통보를 보고 사실로 믿었으나 고개를 넘은 뒤에 사람들의 말이 매우 많기에 신이 마을에 드나들며 다시 자세히 물어보니 이 러하였습시다.

왜적에게 포로로 잡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적에게서 도망쳐 나와 바다를 건너 加沙津에 도착한 뒤 뱃사공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데 뱃사공이 모두 결박하여 즉시 본 府에 바쳤습시다. 그러자 부사 홍인걸과 첨사 박감 등이 감옥에 가두고 2일이 지난 후 죽이려고 할 무렵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고 통곡하며 서울에 가서 분간한 다음 죽여 달라고 애원하였습시다. 그 중 한 사람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이 멀리 이국땅에 포로로 있다가 천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파도를 헤치고 만리를 건너와 고국의 산천과 일월을 다시 보았으니, 지금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왜적들의 흉봉에 비명 횡사하는 것보다 낫다. 이 또한 다행한 일이다.’라 하고, 연달아 나아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슬프고 원통해 하였는데, 거만하게 자기 공적으로 삼아 허위 보고한 方伯이야말로 지극

6) 『조선왕조실록』, 선조 28년, 1595년 2월 22일 조항 참조.

히 無狀하다 하겠으니, 조정에서 처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에 啓下하였다.⁷⁾

이해 9월, 귀료에 그는 金剛山을 유람하였다. 이때에 쓴 그의 금강산 유람기는 명문장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의 금강산 유람기는 경관 묘사가 뛰어나며 다른 금강산 유람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어 그 가치가 주목된다.

그는 틈틈이 전장을 누비는 여가에도 그가 벼슬하는 지역에 있는 산수에 대한 유람을 실행하고 그 느낌들을 기록하였다.

28세(1596) 1월, 예조 정랑이 되었다. 2월, 홍문관 수찬이 되고, 知製敎를 겸하였다. 그해 三南 都體察使 李元翼의 從事官이 되었다. 노경임은 전장을 누비며 종사관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다. 4월, 선조 임금을 인견하고 변방의 일을 아뢰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원익의 종사관으로 선조 임금과 문답하는 장면과 도체찰사 종사관으로서 활약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가을, 부교리가 되었으나 體察府의 계청으로 그대로 머물렀다.

29세(1597) 1월, 체찰부의 일로 상을 인견하고 변방의 실정을 아뢰었다. 곧 교리에 제수되고 入直의 명을 받았다. 6월, 성군관 전적이 되었다.

일본은 조선과 강화가 결렬되자, 1597년 14만 1,5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침략하여 남해·사천·고성·하동·광양·구례를 거쳐 남원을 점령한 후 좌·우군으로 나누어 좌군은 남쪽으로, 우군은 충청도로 북진했다.

9월 권율·이시언의 조명 연합군은 직산에서 일본군의 북상을 막았고, 삼도수군통제사에 복귀한 이순신 역시 12척의 함선으로 300여 척의 일본 수군을 명량에서 대파하였다. 이 때 노경임은 또다시 의병을 소집하고 활동한 사실이 발견된다.

『서애선생문집』에 들어있는 「偉夫 洪瑋에게 답함(1597, 선조30)」이란

7) 『조선왕조실록』, 선조 28년, 1595년 7월 26일 조항 참조.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된다.

“삼가 간곡한 글을 받고 다소 위안이 되나, 왜적이 다시 날뛰다 하니 남쪽의 사태가 더욱 걱정이네. 景任 盧弘仲은 백면서생으로서 요충지를 담당하여 작고 외로운 성으로써 왜적을 대항하려고 생각하니, 생각하면 눈물겨운 일이네. 명나라 군사가 벌써 안동과 상주에 주둔해서 형세를 이루고 있으니 참으로 잘된 일이네. 이곳에도 이와같이 하려고 하나 다만 군량미가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네. 여러 가지 계획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을 텐데, 천자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⁸⁾

12월, 시간원 헌납이 되었다. 30세(1598) 헌납을 사직하고 道心村으로 피난갔다. 이 당시 정황을 묘사한 시가 문집에 남아 있다. 시는 뒤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598년 12월, 西厓先生이 탄핵을 받고 영의정에서 파직되어 돌아오자 서에 선생에게 시 두 수를 지어 봉정하였다[奉呈西厓先生 戊戌(1598) 西厓先生 以領相被劾罷歸]. 이 시도 뒤편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종부시 전부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31세(1599) 봄, 醴泉 郡守가 되었다. 32세(1600) 8월, 예천 군수를 그만두었다. 이때 鶴駕山을 유람하였다. 학가산을 유람하고 시 한 수와 기문을 남겼다. 이 시에서는 그의 학문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예천 군수를 사직하고 평생 성리학에 뜻을 두고 학가산에서 공부하려고 뜻을 세우려 한 듯하다. 33세(1601) 3월에 장인 柳雲龍의 상을 당했다. 그는 송제에서 먼저 가신 장인에 대해 회상하곤 하였다.

34세(1602) 7월, 善山에 있는 冷山을 유람하였다. 노경임은 냉산을 좋

8) 『서애선생문집』 제12권, 「答洪偉夫 瑋○丁酉」. “謹承情問蘇慰 賊勢將復動 南方之事 尤爲可憂 景任以白面書生 當要衝 欲以斗樣孤城抗賊 念之令人隕淚 天兵先據安尙 以作形勢 事甚當 此間亦欲如此 而只緣糧餉難繼爲悶耳 大槩萬計潰裂 不可如何 不知天意竟如何也.”

아하였다. 「냉산유람기」와 시를 남겼으며 냉산 증택에 냉악정사를 짓고 그곳에서 머물렀다. 경암은 끝없이 시비가 일어나는 향교에 대해 「與鄉所 鄉校僉丈」을 지어 논척을 받고 있는 院長을 위해 중재하였다. 11월에는 公州 判官이 되었으나 대북파의 장령 趙庭堅의 반대로 체직되었다. 이어 結城 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모친의 병환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다. 경암은 노모를 극진히 모셨다. 경암은 벼슬과 학문을 두고 끝없이 갈등하였다.

36세(1604) 윤9월, 豊基 郡守가 되었다. 이듬해 4월, 小白山을 유람하고 「소백산 유람기」를 지었다. 이해에 벼슬에서 해직되었다. 그는 산을 좋아하는 천성을 살리면서 학문에 치중하려고 하였다. 그는 이 시기에도 伽倻山을 유람하고 「가야산 유람기」를 지었다. 경암은 산수를 좋아하는 산수벽이 있었다. 그는 스승이자 외삼촌이었던 장현광을 위해 遠懷堂을 세웠다. 이것은 임진왜란 후 장현광이 거처하던 장소인데 노경암의 주도하에 세워졌다.

39세(1607) 5월, 그의 스승이자 처삼촌인 西厓先生이 졸하였다. 그는 선생을 위해 예를 다하였으며 만시와 제문을 짓고 곡하였다. 그해 6월, 寧海 府使가 되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했다. 광해군을 보필하던 대북파 신료들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잦은 정쟁과 옥사를 일으키고 조정을 혼란하게 하였다. 경암은 대북파의 영수였던 내암 정인홍과 마찰을 빚으면서 배척을 당하는 입장이었다. 대북파들은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의 사사, 인목대비 폐출 등 전통적인 유교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부추김으로써 정적들에게 반정의 명분을 세워주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임진왜란 발발 후 7년 동안 벌어진 전쟁을 통해 망국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던 조선은 내정의 혼란으로 국력이 급속도로 약화된 명나라와 여진족의 지도자 누르하치가 세운 신흥강국 후금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41세(1609)에 城을 쌓는 일로 淸涼山에 갔다. 42세(1610) 退溪先生 從享의 일로 安東에 갔다. 朴而立이 鄭仁弘에게 가세하여 李埵과 鄭述를 誣告하자 「上鄭寒岡先生」을 지어 보냈다. 43세(1611) 영해 부사를 그만 두고 귀향하다.

45세(1613) 星州 牧使가 되다. 鄭仁弘과의 불화로 賦役이 고르지 못하다는 誣告를 받고 파직되었다. 洛東江 가에 詠歸亭을 짓고, 慕魯村에卜居하였다.

49세(1617) 7월, 비변사가 노경임을 儒將의 후보로 천거하였다. 52세(1620) 1월, 寒岡先生을 곡하다. 11월 10일, 慕魯村 寓舍에서 졸하였다. 그는 파란만장을 인생을 보내며 52세의 비교적 짧은 인생을 마감하였다. 1621년에 崇巖洞에 장사지냈다. 효종 1년(1650)에 扈聖原從의 공로가 인정되어 通政大夫 承政院 都承旨에 추증되었다.

이광정은 경암집 서문에서 노경임을 孔門四科를 모두 갖춘 인물로 평가했다. “孔門에서 四科로 나누었는데,⁹⁾ 덕행이 있는 자는 언어에 부족하고, 문학이 있는 자는 정사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가 각각 그 장점을 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민자건의 덕행은 말 속에 있었고, 자유의 문학은 무성의 현가소리에 드러났으니¹⁰⁾ 공자께서 이미 다 허여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 부족함이 있었겠는가? 선생은 여현 장현광 선생에게 배웠으니, 문장은 관각에 충당할 수 있고, 학문은 임금의 물음에 대비할 수 있고, 덕

9) 『논어』 「先進」에 孔子의 제자들을 장점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여 “덕행에는 顏淵과 閔子騫, 冉伯牛와 仲弓이고, 언어에는 宰我和 子貢이고, 政事에는 冉有와 季路이고, 문학에는 子游와 子夏이다.”라고 하였는데, 후세에 이를 孔門四科라고 하였다.

10) 거문고와 비파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시가를 읊는 소리라는 뜻으로, 백성들에게 예악을 가르치며 선정을 베푸는 비유로 쓰이는 표현이다. 공자의 제자 子游가 수령으로 있는 武城 고을에 현가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공자가 흐뭇하여 빙그레 웃으면서 “닭을 잡는 데에 어찌하여 소 잡는 칼을 쓰느냐.”고 농담을 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論語』 「陽貨」)

은 말속의 의표가 될 수 있고, 재주는 고을의 일이 번잡하고 쉬운 것을 조절할 수 있고, 그 정치를 행하면 또한 옛 도를 회복시켜 선을 흥기시킬 수 있었으나 즐하자 때에 말살되었으니 나이는 겨우 지명(오십세)을 넘겼다. 심중에 온축한 것을 하나 둘도 베풀지 못했다. 그러나 그 문자 언어 정치를 행한 선후에 나아가면 또한 그 일단을 유추할 수 있다. 사과에 모두 마땅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¹¹⁾고 하였다.

鶴沙 金應祖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노경임은 君子는 떠나가고 小人이 집권하는 날이 이르기에 미쳐 관직에 골몰해 있었고 또 미미한 일일지라도 게을리 하지 않으려 하였으며, 文을 숭상하고 學을 진흥시킴을 급선무로 삼았으므로, 떠나간 뒤 늘 去思碑가 있었는데, 성주의 경우는 정인홍에 의해 저지되었다. 아! 공의 바른 학문, 두터운 덕, 큰 재능으로 중년과 만년에 만족하도록 크게 갖추지 못하였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공의 언행은 정중하여 과감하게 다하지 못하였는데, 집안에서의 행동을 한결같이 바르게 하였고 國喪을 당했을 때 부모의 상처럼 그 禮制를 다한 데 이르러서는 실로 수많은 世人 중에 한 사람뿐이니, 후세의 公論이 어찌 백년을 기다려야만 정해지는 것이겠는가? 銘에 이르기를

위대한 안강 노씨

安康之盧

대대로 이어온 그 후손

蟬聯胄胤

옥산 장씨 旅軒의 생질이요

玉山宅相¹²⁾

하회 유씨 謙庵의 사위라네

河回玉潤¹³⁾

11) 『경암집』 권1, 『敬菴先生集序(李光庭)』.

12) 宅相: 쑤나라 魏舒가 어려서 외가인 寧氏 집에서 자랐는데, 그 집터의 미래를 점친 宅[相宅者]가 ‘장차 귀한 외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대로 위서가 나중에 司徒의 지위에까지 올랐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어, 相宅 혹은 宅相이 외손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晉書』 卷41, 『魏舒列傳』.)

13) 玉潤: 장인과 사위 모두가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말이다. 쑤나라 樂廣이 衛玠를 사위로 맞아들였는데, 이에 대해서 裴叔道가 “장인은 얼음처럼 맑고 사위는 옥돌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훌륭한 인품	趾美襲芬
수려한 품모에 빼어난 자질	英姿粹質
뛰어난 품행의 아름다움	制行之懿
겉과 속이 한결 같았네	表裏如一
시운이 말살되어	抹撥于時
생시에 포부를 펼치지 못하였고	生未展布
그 덕을 알아주는 자 드무니	知德者希
서원에 제향도 되지 못했네	歿不俎豆
금오산의 높은 기상	烏山巘巘
낙동강의 도도한 흐름	洛水泱泱
그의 명성과 함께 높아지고	名與齊高
도와 더불어 영원하라	道與俱長 ¹⁴⁾

1727년 증손 盧命全이 李裁의 校勘을 받아 遺稿를 刪定, 編次해 놓았다. 1753년 5대손 盧愷이 再從兄 盧濬과 함께 李光庭의 도움을 받아 다시 遺稿를 刪定하고 編次하였다(李光庭의 序). 1784년 盧愷이 문집 7권을 간행하였다(盧愷의 後識).

이 본은 현재 규장각(奎4704), 국립중앙도서관(古3648-文15-16),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44), 간송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 논문의 자료는 1784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 본이다.¹⁵⁾

3. 경암의 「月幕山水記」와 그 장소성 분석

‘장소성’이란? 그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장소는 구체적이고 독

처럼 윤이 난다.[婦公水淸 女婿玉潤]”고 평했다는 고사가 있다.(『晉書』卷43, 『樂廣列傳』)

14) 金應祖, 『敬庵盧公墓碣銘』.

15) 생애 부분은 한국고전번역원 『경암집』 해제, 신용남(1999)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특하여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지표면의 일정 구역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공간을 지칭한다. 장소성은 각각의 장소가 가지는 독특한 성격으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고 인식이 변화하며 사회적 의식으로 표출될 때 형성된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장소감’이란, 장소와 개인, 집단, 자연환경, 인문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이·성별·직업·사회 계층·종교·인종·가치 및 신념·교육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한다. 장소 및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주관적 경험에 의해 변화된다. 같은 장소에 대한 장소감은 개인 또는 집단마다 다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이데거(1958)·슐츠(1962)·루커만(1964)에 의해 거주와 실존적 장소에 대해 논의가 된 후, 랠프(1976)에 의해 모든 장소는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형태, 즉 경관을 가지며 자연적이거나 혹은 만들어진 물리적 환경과 공간은 문화가 포함되는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의미가 부여될 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고 정의되었다. 트랜식(1986)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장소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학자들의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용어의 혼란성이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장소성의 개념은 모호한 면이 있어 보인다.¹⁶⁾ 이 용어를 통해 한문학을 비평해 본다면 우리가 조명하지 못했던 분야가 새롭게 조명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중심으로 『月幕山水記』와 그 장소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월막산수’는 그 명칭을 분석해 본 결과, 월막은 지명이었다. 월막은 ‘달막’이라고도 불렀다. 정월 대보름날 달집태우기를 할 때, 그 달집을 ‘월막’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지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달이 떠오르면 동네

16) 홍성희·박준서·임승빈. 『환경계획 및 설계를 위한 장소성 개념 연구-‘Sense of Place’와 ‘Placeness’ 용어 비교 분석.』, 『한국경관학회지』 3권 1호. 한국경관학회, 2011, 14~30쪽 참조.

가 아름답게 되살아나는 경치를 묘사하기도 한다. 달의 아름다운 형상이 지명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월막’이란 이름이 수도 없이 많다.

여기에 붙어 있는 월막의 위치를 분석해 본 결과, 팔각산과 옥계구곡이 있는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일원이다. 달산이란 지명을 월막과 비교해 보건대 그 어원의 관련이 깊을 것도 같다. 또 인근 청송에도 月幕이란 지명이 존재한다.

이곳 ‘옥계 침수정 계곡 일원’은 경상북도 기념물 제45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 산수가 경상북도에서 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 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민족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발굴하여 계승하고 조상의 빛나는 얼을 오늘날에 되살려 놓는 일은 후세들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舫山 許薰(1836~1907)의 『舫山集』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옥계의 시냇가에 침수정이 있다. 손성율이 지은 것이다. 골짜기 입구에 바위가 있고 이름이 새겨진 안내 기둥이 있다. 경암 노경임이 영덕의 군수가 되었을 때 바위 위에 ‘詠歸臺’라고 새겼다[玉溪溪上 有枕漱亭 孫星乙所構 洞口有石 名華表柱 盧敬庵景任 爲盈德宰 刻詠歸臺於石上].」

노공이 새긴 글씨에 푸른 이끼가 잠식하고	盧公遺刻蝕苔青
수석 산옹 ¹⁷⁾ 옛날에 이 정자에 머물렀네	漱石山翁昔此亭
반 이랑 맑은 물결 옥거울을 비추는 듯	半畝激波開玉鏡
사시사철 짙은 안개 푸른 암벽 적시네	四時濃靄滴蒼屏
乙仙[손성율]이 돌아오지 않으니 구름은 길을 묻고	乙仙未返雲埋逕

17) 수석 산옹 : 쯤나라 孫楚가 숨어 살려고 하면서, “돌을 베고 물에 양치질하련다.[枕石漱流]”라고 말해야 할 것을, “물을 베고 돌로 양치질하련다.[枕流漱石]”라고 잘못 말했는데, 王濟가 그 말을 듣고서 잘못을 지적하자, 손초가 “물을 베는 것은 俗塵에 찌든 귀를 씻어 내기 위함이고, 돌로 양치질하는 것은 煙火에 물든 치아의 때를 갈아서 없애려 함이다.”라고 대답했던 고사가 전한다.(『世說新語』「排調」) 여기서 枕流漱石에서 이름을 따서 지은 枕漱亭의 주인 손성율을 가리킨다.

화표[안내판]는 있건만 달빛만 물가에 가득하네	丁柱猶存月滿汀
차가운 샘 문안에서 옥 비파를 울리는 듯	入戶寒泉瑤瑟響
청신한 소리 밤새도록 잠을 자주 깨우네	神清終夜夢頻醒 ¹⁸⁾

방산 허훈은 이 시에서 경암 노경임 선생이 이곳 바위에 ‘詠歸臺’라고 새긴 글씨가 있다고 했다. 시에서는 노경임이 새긴 글씨에 이끼가 잠식한다고 하여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詠歸臺’라는 이름은 공자의 제자 曾點이 자신의 뜻을 말하라는 공자의 명에 비파를 울리다 말고, “저문 봄날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어른 대여섯 사람, 동자 예닐곱 사람과 함께 沂水에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을 쐬고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다.[詠而歸]”라고 말한 『論語』 「先進」편의 글에서 ‘詠而歸’를 취하여 만든 명칭이다. 노경임은 논어에서 이 구절을 상상하며 이 장소에 뜻을 붙였다. 이 구절은 선진시대 산수자연을 향유하는 미의식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다. 공자가 증점의 이 말을 듣고 그의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한[灑落]한 기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칭찬하며 가상하게 받아들였다. 경암 노경임은 유학자로서 산수자연의 공간에 경험하는 고상하고 사색적인 장소성을 논어에서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산 허훈은 이것에 이어서 또 손성율이 이 정자를 지은 것이라고 했으며 시에서는 乙仙[손성율]이 돌아오지 않으니 구름이 길을 묻는다고 하여 노경임과 손성율의 시대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孫星乙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는 天卿이며 생몰연대가 1724~1796으로 정조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¹⁹⁾ 방산 허훈은 경암 노경임이 이 장소에 대해 원조 주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손성율이 이 터전 위에 침수정을 지었다. 침수정에 걸린 손성율의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許薰, 『舫山先生文集』 卷5, 『玉溪溪上 有枕漱亭 孫星乙所構 洞口有石 名華表柱 盧敬庵景任 爲盈德宰 刻詠歸臺於石上』.

19) 사단법인 박약회 영덕지회 편, 『영덕의 정자』, 2012, 139~142쪽, ‘침수정’ 조항 참조.

나 자신의 모든 일 정자 하나에 부치니	萬事吾身付一亭
옥 같은 맑은 소리 창틀로 들어오네	清音擊碎入牕櫺
어룡은 가는 봄을 걱정하여 굴속에 숨고	龍愁春暮蟠藏窟
학은 맑은 가을 좋아하여 바위빙풍서 춤추네	鶴喜秋晴舞環扉
오래된 바위에 세 마리 거북이 폭포를 엿보고 ²⁰⁾	老石三龜窺淺瀑
한가로운 구름 팔각전은 빗장을 걸어 올리네 ²¹⁾	閒雲八角捲疎扃
평생 동안 노을 속에 부질없이 앉아서	平生浮坐煙霞積
옥부 ²²⁾ 의 인연에 몇 번이나 깨었던고	玉府眞緣夢幾醒

辛亥九月上澣 枕流翁題 신해년(1791) 9월 상순에 침류옹이 짓다.

위의 시에서 침수정을 지은 연대를 보면 신해년(1791년) 경이다. 손성은 이곳에 정자를 짓고 이 산수에 깃들어 살았다. 이 시에 나오는 八角이라는 시어는 불교의 팔정도 설에서 형상화되어 팔각탑, 팔각지붕 등이 유행하였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 八角이란 그 지붕 모양이다. 지금 현재 이 산이 팔각산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이 시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불교적인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방산 허훈은 경암 노경임 선생이 이곳 바위에 ‘詠歸臺’라고 새긴 글씨가 있다고 한 것은 노경임의 정자가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곳에 다시 침수정을 지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밝혀준다. 노경임의 『월막산수기』에는 주자가 은거했던 무이산을 상상한 것이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도교와 유교의 사상이 발견된다. 따라서 바로 이 팔각산에는 유불선의 상

20) 三龜 : 세 개의 거북점이라는 뜻인데, ‘夏·殷·周’ 三代의 점치는 방식이라고도 하고, 太王·王季·文王의 방식이라고도 하고, 卜人 세 사람의 거북점이라고도 하는 등 설이 다양하다. 여기서는 이것을 본떠서 지은 이 산의 바위 이름을 말한다.

21) 八角 : 불교의 팔정도를 형상화한 팔각 모양의 지붕을 말한다.

22) 玉府 : 群玉府를 가리킨다. 群玉山은 西王母가 살았다는 전설상의 仙山으로, 뒤에 제왕의 藏書閣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穆天子傳』 卷2 註) 여기서는 이 옥부의 진인의 인연으로 그 소리를 내는 샘물 소리를 형용한 것이다.

상력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방산 허훈은 앞의 시에서 옥계라는 명칭을 밝히고 있다. 뒤에서도 밝혀지지만 옥계라는 명칭을 처음 붙인 것은 경암 노경임이다. 방산은 이것을 상기하며 옥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공간의 경관을 체험한 인물들의 장소성에 대한 장소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옥계계곡에 지은 침수정은 팔각산과 동대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산과 강이 아름다우며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계곡 주위의 깎아 놓은 듯한 기암괴석은 삼귀암·학소대·병풍석 등 37경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만들며 명소마다 전설이 깃들여 있다. 계곡 가운데 경관이 가장 빼어난 곳에 있는 침수정은 손성율이 1784년경에 건립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옛 자리에 남아 있어 계곡의 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안내판은 소개하고 있다. 침수정에 걸려있는 손성율의 시에 八角이란 용어의 대구를 맞추면서 방산은 華表를 의식하여 ‘丁柱’라는 시어를 찾아내었다.

간이 최립의 『辛巳行錄』에 「白塔을 차운하여 읊다」 시를 보면

은하수 떠 마실 듯 몇 길 무지개로 치솟은 탑	仰飲銀潢幾丈巍
흘러내린 흰 햇무리 청제를 압도하네	旁流素暈了青齊
불사를 일으켜 사람의 공력을 다 바친 곳	空門得計殫人力
벽돌 쌓아 만든 형상 귀신도 혼미하게 하네	累甃成形使鬼迷
팔각지붕 화려함을 꾸짖노니 높이 솟았다 자랑마소	八角麗譙休詫聳
천추의 화표보다 낮은 것 부끄러울 수 있네	千秋華表可羞低
중건하고 세운 비석 얼마나 큰 공업인가	重新勒石何功業
어사와 장군 이름 함께 더불어 올라 있네	御史將軍與共題

이 시에서는 八角과 華表가 대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華表柱의 전설을 지니고 있는 요동의 백탑에서 유래한다. 요동 사람 丁令威가

仙道를 배워 터득한 뒤 천 년 만에 학으로 변해 고향 땅에 돌아와서 화포 주에 앉아 있다가 탄식하며 날아갔다는 전설이 있다(『搜神後記』卷1). 이것을 방산 허훈은 ‘丁柱’라는 시어로 다듬었다. 八角과 丁柱가 대응되는 시어로 등장하는 것에서 손성의 침수정 현판의 八角이 강조되고 이로 부터 이 산의 명칭이 팔각산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손성을 당시에는 이곳에 불교가 사찰을 짓고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변의 사찰에서도 노경임이 이 산수에 지었던 옥계서당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손성을 훨씬 이전에 경암 노경임 선생은 1607년 6월 영해 부사로 부임하여 1611년까지 약 5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이 당시에 이 산을 유람하고 「월막산수기」를 지었다. 이 산수기는 너무 아름답고 자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이 일어나게 한다. 특히 이 아름다운 산수에 최초로 일일이 명칭을 붙여가며 기록한 이 산수기는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하고 있다. 노경임은 이곳 산수를 유람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월막산수를 유람하고[遊月幕山水]」

선계의 풍광에 가을이 한창인데	眞界風光屬九秋
우연히 찾아오니 골짜기 그윽하다	偶然來訪洞天幽
옥 같은 부용봉 구름 밖에 솟아 있고	芙蓉玉骨撐雲外
비단 같은 붉은 모래 바위를 감싸 안네	錦繡丹砂繞石頭
옥 빛 강물은 깊어졌다가 또 얕아지고	瓊液淙潺深復淺
아름다운 노을에 구름은 가다가 다시 머무네	祥霞暎靄去還留
인간 세상 속된 상념은 깨끗이 사라지고	人寰塵念都消盡
선향에 들어와 학을 짝하고 노니는 듯	疑入仙鄉羽侶遊 ²³⁾

노경임은 금강산을 유람하고는 「유금강산기」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월막

23) 『敬菴先生文集』卷1, 「遊月幕山水」.

산수기』는 산 공간과 물 공간을 대비시켜 산수의 미적 정취를 동등하게 대비하여 『산수기』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옥계계곡이 산 못지않게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점이 있다. “이곳은 경주와 영덕 두 고을 사이에 있다. 후에 서당을 짓고 이름을 옥계라고 하였다.[在慶州 盈德兩邑間. 後築書堂, 名曰玉溪.]”라고 시의 제목 밑에 밝혀두고 있다. 또 기문에서는 영덕에서 서쪽으로 50리쯤에 있다고 하였다. 옥계라는 이름은 노경임에 의해서 최초로 불리지게 되었다. 옥계를 주자의 무이산에 비교하여 최초로 언급한 사람도 노경임이다. 그 한참 후에 옥계구곡으로 처음 이름을 붙인 사람은 성재 유중교이다. “나는 장차 가솔들을 이끌고서 북쪽으로 옮겨가 자식들과 더불어” 함께 옥계구곡 사이에 은둔하고 싶다.[余將挈家而北遷與子偕藏於玉溪九曲之間]²⁴⁾라고 한 것이 옥계구곡이란 이름으로 불리지게 되었다. 유중교는 서애 유성룡의 질서이자 제자였고 영남 퇴계학맥에 우뚝한 존재였던 노경임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 산수에 옥계서당을 지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옥계서당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지금의 침수정 주변에 노경임이 지은 옥계서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방산 허훈은 그곳에는 노경임이 직접 새긴 영귀대라는 글씨가 아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곳은 이 산수유기가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 산수는 지금 팔각산과 옥계구곡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경암 노경임은 이 산수를 유람하고 아름다움에 반했다. 그가 남긴 『월막산수기』에는 이 산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곳곳에 이름을 붙였다. 그 당시에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경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주자가 무이산에 노니는 것처럼 이 산에 살면서 노닐겠다고 한 점에서 옥계구곡은 무이구곡과 연관성을 갖는다. 노경암의 산수시는 그 감상이 미학적이고 그 경관 묘사가 뛰어나다²⁵⁾는 평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노경임은 타고난 미감이

24) 柳重教, 『省齋集』 권40, <柯下散筆>, 『祭洪汝章文』.

25) 신두환, 『경암 노경임의 생애와 문학세계』, 『강사문화』 6집, 강사기념사업회, 2020.

있었으니 시는 그의 예술정신의 기본이었다.

그는 「月幕山水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숲과 계곡을 좋아하는 산수 벽이 있어서 아름다운 산수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찾아간다. 혹시라도 가지 못하면 그 생각에 꿈속에서 헤매며 가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²⁶⁾

노경임은 산수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벽이 있었다. 그는 여러 산들을 유람하고 산수에 이름을 짓기도 하고 유람기와 시를 남겼으며 그의 뛰어난 산수에 대한 감상은 타고난 것이었다. 그의 유람기와 산수시는 경관의 묘사가 뛰어나다. 그의 산수유기를 꼼꼼히 분석하며 펼친 산수의 정취를 감상해 본다. 다음은 「월막산수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번 가을에 여러 벼들과 월막의 산수를 감상했는데 산수가 이름답게 빼어나고 정결한 것은 과연 비할 데가 없었다. 진실로 천태²⁷⁾와 여부²⁸⁾가 가까운 지척에 있는데도 일찍이 가본 적이 없다면 얼마나 탄식할 일이겠는가. 아! 이 산수는 천지가 개벽한 뒤로 몇 천만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산중의 늙은이와 시골 야인들 속에 있어서 보통 구릉과 같이 한꺼번에 묻혀버려 세상에 알려짐이 없었으니 돌아보면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니던가? 나는 이름 없는 이 산수가 세상을 피해 살면서도 번민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대로 죽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현인군자와 같은 점을 슬퍼하여 마침내 곳곳에 이름을 붙여 그 흔적을 드러내었는데 이것이 매우

26)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余性癖林壑, 聞一佳山水, 輒一至焉. 或未能至, 輒懸諸夢想, 眷眷不已.”

27) 天台: 중국의 명산 천태산을 가리킨다. 쑤나라 孫綽의 「遊天台山賦」에 “아, 아름답게 우뚝 솟은 천태산이여, 이것은 신명이 부지하신 바로다.[嗟天台巖之所奇挺 寔神明之所扶持]”라는 구절이 나온다.(『文選』卷11)

28) 廬阜: 중국의 여산을 가리킨다. 중국의 명산들을 가리킬 때 廬阜와 天台가 자주 등장한다.

참람된 행동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조만간 이 속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살면서, 우리 회암[주자] 선생이 무이산에 은거하여 학문을 수양한 것처럼, 우리 무후[제갈량]가 남양에 은거하여 직접 밭을 갈면서 고서를 읽고 옛 의를 행했던 것처럼, 사슴을 벗하고, 어부와 나무꾼을 짝하며, 바람 부는 아침이나 달뜨는 저녁에 천석사이를 산보하며, 아름다운 때나 즐거운 날에는 골짜기에서 노래 부르고 시를 읊으면서, 나의 여생을 다하도록 이 아름다운 산수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²⁹⁾

라고 하였다. 경암 노경임은 이 월막산의 아름다운 산수에 취해, 여기에서 주자가 무이산에 은거하여 산수를 유람하며 학문에 힘쓴 것처럼 지내고 싶다고 하였다.

또 무후[제갈량]가 남양에 은거하여 직접 밭을 갈면서 고서를 읽고 옛 의를 행했던 것처럼 살고 싶다고 했다. 노경임은 『삼국지』도 읽었던 것이 드러난다.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주희의 『무이도가』를 모방한 구곡이 선비들 사이에 유행하고 직접 구곡을 점유하여 경영하던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던 때이다. 이 산은 수려한 산과 강이 어울려 주자가 은거했던 무이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름답지만 그 누구도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시각으로 다시 발견한 것은 경암 노경임이 최초였다. 경암은 이 산수를 보면서 주희의 무이구곡을 연상하였다. 이 산수에다가 성리미학을 더하여 일일이 이름을 짓고, 살살이 살피며 산행을 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른바 강호가도를 구가한 것이었다. 그가 이 산을 유람한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今秋, 與諸友賞月幕山水, 山水之奇麗精潔, 果無比焉. 信乎天台廬阜近在咫尺, 而未嘗到者 可歎也夫! 噫! 此山水來自鴻濛, 曾不知幾千萬年, 而留與山翁野夫盲視瞽聽, 與丘陵等歸一場浪沒而無稱, 顧非不幸之甚歟! 余悲山水之無稱, 亦猶賢人君子遜世無聞, 沒世不見稱者也. 遂逐處揭名以著其跡, 無乃僭之甚乎. 余當早晚卜築其中, 藏修學吾晦菴武夷, 躬耕邁吾武侯南陽, 讀古書行古義, 友麋鹿侶漁樵, 風朝月夕, 徜徉乎泉石, 佳時令節, 歌詠乎丘壑, 以盡吾餘年, 庶不負此山水之奇絕云爾.”

자하동 → 탁영담 → 방선암 → 둔세굴 → 서소암 → 원감대 → 부벽동 →
 도원동 → 선유동 → 사세암 → 세진담 → 일출봉 → 일입봉 → 자소봉 →
 용운봉 → 용룡담 → 한계암 → 학소암 → 진주암

경암 노경임은 이들의 노정과 위치를 상세히 밝히고 그 이름을 짓게 된 연유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유람기를 겸하여 끝을 맺고 있다. 이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래와 같이 이름을 기록한다.[姑記名如左]”고 하면서 이름을 붙이고 설명하는 식으로 산수유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먼저 ‘자하동’이다.

紫霞洞：月幕에 있고 월막은 영덕현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골짜기가 깊숙하고 궁벽하며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라보면 마치 선계와 같다. 유람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골짜기를 거쳐 들어가야 하는데 노을과 초목이 푸른빛과 자주빛이 서로 엉겨 비춘다. 그래서 골짜기 입구를 총칭하여 자하동이라고 한 것이다.³⁰⁾

月幕은 영덕현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다. 이곳은 바로 지금의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일원이다. 달산이라는 이름이 월막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 월막이란 이름은 군마다 면마다 있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다.

紫霞란 仙宮을 가리킨 것으로 신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선은 자주색 雲霞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紫霞酒를 마신다는 전설이 있다. 여기서 경암은 이곳을 신선들이 내려와 사는 선계로 표현하면서 선경인 동부[골짜기]가 깊고 궁벽한 곳에 있어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경암 자신도 임진왜란을 직접 목도하고 당파싸움이 극치로 치닫던 광해군

30)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紫霞洞 ○月幕在盈德縣西五十里, 洞府幽僻, 塵寰迥隔, 望之如仙界. 遊者必由此洞而入, 雲霞草樹蒼紫交映. 故總名洞口曰紫霞洞.”

시절의 혼란을 직접 겪으면서 이 속세에서 벗어나 관직을 버리고 산속에 은거하여 학문을 수양하고 싶었던 관직과 은거 사이의 갈등을 은근 중에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雲霞’라는 단어도 신선은 자주색 雲霞를 타고 다니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경암은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은거하기에 너무나 좋은 선경에 비유하고자 한 취지를 강조하여 자하동으로 이름하였다. 경암은 이렇듯 월막산수에 이름을 붙여 걸면서 이 월막산수를 성리의 미의식을 총동원하여 선경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것은 이 산수 공간에 아름다운 의미를 붙여 비로소 그 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탁영담’이다.

濯纓潭 : 자하동에서 서쪽으로 1리 쯤 가면 물이 맑고 깨끗한 못이 있는데 1백여 보 정도를 빙 돌다가 흘러내려간다. 매년 봄이면 황어가 시냇물에 가득하고 좌우의 반석은 넓고 평평해서 백여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다. 이곳에 오면 선향의 풍미가 있다는 것을 느껴 탁영으로써 스스로를 청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탁영담이라고 한 것이다.³¹⁾

경암은 이곳의 맑은 물을 보고 굴원의 초사 「어부사」를 떠올리며 탁영담이란 이름을 유추하였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滄浪之水清兮
나의 갓끈을 씻고	可以濯吾纓
창랑의 물이 흐리면	滄浪之水濁兮
나의 발을 씻으리라	可以濯吾足

경암은 초사 「어부사」에서 이것을 취하여 ‘濯纓’이란 이름을 점철성금

31)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濯纓潭 ○自紫霞洞西行一里許有潭, 清潔縈流百餘步. 每歲春月, 黃魚滿溪, 左右盤石廣衍, 可坐百餘人. 到此已覺有仙鄉風味, 可以濯纓以自潔. 故名之曰濯纓潭.”

하였다. 퇴계 이황이 『도산잡영』에서 ‘탁영담’이란 이름을 지었던 것과 퇴계의 제자 서애 유성룡, 그리고 서애의 수제자 경암 노경임까지. 탁영이란 이름은 다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경암은 임진왜란과 광해군의 폭정을 보며 자기 시대를 혼란의 시대로 보았다.濁世면 大隱하는 것이 선비의 도리였다. 경암은 은거하여 학문을 수양하고 싶어 했다. 경암은 이곳의 경관의 특색으로 황어가 가득한 것과 백여 명이 앉을 만한 넓은 바위를 꼽았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 누구나 선경의 풍미를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이곳을 ‘탁영담’이라고 이름붙였다. 다음은 ‘방선암’이다.

訪仙巖：탁영담에서 물을 따라 위로 1리 쯤 되는 곳에 바위가 있는데 높이는 약 4, 5척이 된다. 상면은 반석처럼 평탄하게 펼쳐져 앉거나 누워 쉴 수가 있고 아래에는 맑은 못이 있다. 봄이 저물 때에 낙화가 물에 가득하면 꼭 선옹과 우객을 만날 것만 같다. 그래서 방선암이라고 한 것이다.³²⁾

‘訪仙’은 신선을 찾는다는 의미로 신라 때부터 쓰였던 말이다. 경암은 월막의 산수를 선경으로 색칠해 가면서 이 산을 유람한 것 같다. 방선암 역시 선경을 의식한 이름이다. 이 바위는 높이가 아이의 키만큼 될 정도로 높고 상면이 평평한 바위로 앉거나 쉴 수 있다고 했다. 경암은 바위를 묘사하면서 자주 앉거나 쉴 수 있다고 표현한다. 경암은 산수를 원림 공간으로 인식하며 사람과 자연 사이에 친화의 정을 느끼게 만든다. 아래에는 맑은 못이 있어서 상춘에 꽃들이 떨어져 물 위에 가득하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경암은 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하면서 이곳에서는 신선과 도사가 금방 나타날 것 같다고 하여 ‘방선암’이라 이름붙인다고 하였다. 경암은 산수의 유기를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형식으로 장소

32)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訪仙巖○自濯纓潭泝流一里許有巖, 高可四五尺. 上面逶迤如盤, 可以坐臥, 下有澄潭. 春暮落花滿流, 如將遇仙翁羽客. 故名之曰訪仙巖.”

성을 서술해 가고 있다. 경암은 월막의 산수를 선경의 장소로 점점 물들어 독자들을 그 속에 빠뜨리고 싶어 한다. 그 다음은 ‘둔세굴’이다.

遁世窟：방선암에서 물을 따라 서북쪽으로 2리쯤 가면 석굴이 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은 된다. 그 안은 꽤 깊고 넓고 평평한데 바위를 잡고 기어올라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발이 저리고 오금이 떨려서 속세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경우는 드물다. 동굴 위에 泉石이 있는데 그 기이한 모습은 많아서 모두 다 일컬을 수 없다. 굴 너머에는 돌 봉우리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 서술할 자봉산이다. 이 굴은 난리를 피할 만하기 때문에 둔세굴이라고 한 것이다.³³⁾

경암은 난리를 피해 숨는다는 의미를 함의시켜 遁世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했다. 경암은 임진왜란 시절 기술들을 이끌고 피난한 적이 있었다. 이 산굴은 높이가 다섯 길이나 되고 안이 매우 넓었다. 경암은 난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여 ‘둔세굴’이라고 표현했다. 이 산굴 위에는 샘과 바위들이 기이한 경치를 이루는데 거기에는 아름답고 기이한 경관이 너무 많아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굴을 넘어가면 돌 봉우리가 높이 솟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뒤에 서술될 ‘자봉산’이라고 하였다. 경암은 이름이 없는 산수를 유람하며 산의 이름 다음을 표현하려니 여러 가지로 난감함을 느낀다. 그래서 뒤에 이 산을 유람하는 자들이 편하게 감상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지어야 할 장소성을 느끼고 있다.

다음은 ‘서소암’이다.

舒嘯巖：둔세굴에서 동쪽으로 시냇물을 따라가다가 또 서쪽으로 꺾여지

33) 『敬菴先生文集』卷2, 『月暮山水記』. “遁世窟○自訪仙巖沿流西北行二里許有石窟, 高可數十丈. 其中頗深廣寬平, 攀緣而入, 足酸澁, 俗跡罕至焉. 窟之上, 泉石奇怪, 不可殫舉. 窟之越邊, 石峯撐天, 是爲紫鳳山. 是窟可以避亂, 故名之曰遁世窟.”

면 평탄한 바위가 있다. 이곳에서 아래로 맑은 못을 굽어보고 있노라면 경관이 한적하고 청아하여 소요하면서 휘파람을 불 수 있다. 그래서 서소암이라고 한 것이다.³⁴⁾

경암은 경관이 한적하고 청아하여 소요하면서 휘파람을 분다는 의미로 함의 시켜 서소암이라고 이름하였다. 이것은 도연명이 彭澤수를 그만두고 돌아올 때에 지은 『歸去來辭』에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분다.[登東臯以舒嘯]”라고 한 데서 따온 말이다. 경암이 이 산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은 다분히 문학적이다. 경암은 산수를 설명하며 격한 감동을 안고 산행을 가다가 한 박자 쉬면서 다소 가라앉히는 장소로 이 바위를 추천하고 있다. 바위는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아래로 한눈에 들어오는 맑은 웅덩이를 굽어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하였다. 잠시 산행 속에 여유를 가지고 휘파람을 불며 소요할 수 있을 정도로 평온한 감을 주는 장소감으로 경관을 형상해 내고 있다.

다음 행선지는 ‘자봉산’이다.

紫鳳山 : 서소암에서 시내를 건너면 시내 가에 하늘 한복판에 자리한 바위산이 있고 기이한 봉우리들이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는데 멀리서 보면 바로 연꽃 받침과 같고 돌빛이 희다. 이곳에는 옛날에 산성이 있었다. 이 산은 사실 이 고을의 진산으로 날아오르는 봉황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이사이에 자줏빛이 돌기 때문에 자봉산이라고 한 것이다.³⁵⁾

경암은 이 산의 형상이 비상하는 봉황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이

34)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舒嘯巖○自遁世窟東行, 沿溪又西轉, 有巖平行. 下臨清潭, 境界蕭灑, 可以逍遙舒嘯. 故名之曰舒嘯巖.”

35)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紫鳳山○自舒嘯巖渡溪, 溪上有石山中天, 奇岫插雲, 遠望正如蓮萼, 石色皓白. 古有山城. 是山實爲此洞之鎮山, 形如翔鳳, 間有紫色, 故名之曰紫鳳山.”

에 자줏빛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신선이 산다는 紫霞洞을 의식한 말이다. 자줏빛은 곧 저녁노을이다. 이것이 구름 밖으로 드러난 흰색의 바위들이 연꽃처럼 펼쳐지며 비상하는 봉황의 형상에 저녁노을이 고운 것을 함의시켜 자봉산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경암은 자주 색상을 대비시키면서 표현해 낸다. 경암은 이산을 유람하며 이름을 짓는 것은 한 편의 장소성을 나타내는 시이다. 그는 운문인 시보다 산문을 더 선호하는 산문 시인이었다.

다음 행선지는 ‘원감대’이다.

圓鑑臺：자봉산 아래에는 평평한 언덕이 넓게 펼쳐져 있어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집을 지어 살 수도 있다. 그 지형이 둥글고 거울같이 맑기 때문에 원감대라고 한 것이다.³⁶⁾

경암은 자봉산 아래 넓게 펼쳐진 평원을 ‘夷曠’ 풍격으로 표현하였다. ‘夷曠’은 가슴에 막힌 것이 탁 트이며 자유로운 정감이 함의된 표현이다. 경암은 이곳에는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거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경암은 이곳에 거처할 장소를 찾고 있었다. 경암의 시각에는 관리로 있으면서 은둔처를 찾고 있는 吏隱의 정취가 물씬 풍겨난다. 경암의 원감대에 대한 장소성은 기발한 의미를 부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음은 ‘부벽대’이다.

俯碧臺：원감대에서 남쪽으로 60보 쯤 가면 시냇물이 반석을 돌아 흐르고 바위들이 깎아지른 듯이 우뚝 솟아 반은 물 가운데에 잠겨 차가운 그림자가 시냇물에 거꾸로 꽃혀 있다. 줄줄 흐르는 푸른 물결을 굽어보노라면 비취 빛 절벽이 그림 같아서 매우 사랑스럽다. 그래서 부벽대라고 한 것이다.³⁷⁾

36)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圓鑑臺 ○紫鳳山下有平原夷曠, 可田可居. 地圓如鑑, 故名之曰圓鑑臺.”

37)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俯碧臺○自圓鑑臺南行六十步許, 溪水盤回, 石岸斗起, 半入波心, 寒影倒溪. 俯視碧波淙淙, 翠壁如畫甚可愛. 故名之曰俯

경암은 맑고 푸른 물결을 굽어보는 것이 그림과 같아 무척 사랑스럽다고 하여 부벽대라고 이름하였다고 장소성을 확보했다. 경암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물속에 비치는 바위 그림자의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고 했다. 그의 산수미에 대한 감식안에다가 감수성 넘치는 표현은 그의 타고난 미적 특질을 잘 드러내 준다. 그의 ‘부암대’ 묘시는 한 편의 시와 같이 아름답고 부감법에 입체미가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그가 여기에 이런 이름과 의미를 붙이지 않았다면 이곳의 장소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부벽대’라고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가슴에 ‘부벽대’로 와 닿았다.

다음은 ‘도원동’이다.

桃源洞 : 부벽대에서 곧바로 앞에 있는 시내를 건너면 또 작은 골짜기가 있는데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다. 암석은 험준하고 작은 시내가 졸졸 흐른다. 1리쯤 들어가면 사람들이 사는 터와 두어 이랑 정도의 밭이 있는데 밖에서 보면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늘어서 있는 것이 보일 뿐, 이 골짜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도원동이라고 한 것이다.³⁸⁾

경암은 시내 건너편에 있는 작은 동네를 발견하고 도연명의 「桃花源記」를 떠올렸다. 그의 산수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는 그가 독서한 박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그 장소성으로 재조명될 수 있는 훌륭한 요소들인 것이다.

桃源洞은 전설상의 낙원인 무릉도원을 가리킨다. 여기서선 선경으로 알려진 무릉도원을 말한다. 쫓나라 때 무릉의 어부가 복사꽃이 흘러 내려

碧臺.”

38)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桃源洞○自俯碧臺直渡前溪, 又有小洞, 僅通人跡. 巖石阻險, 小川潺湲. 入一里許有人居基址, 田可數三頃, 由外望之, 但見松櫟參天, 不知有此洞. 故名之曰桃源洞.”

오는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니 秦나라의 난리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절세 선경이 있었다고 한다.³⁹⁾ 경암은 외부에서 보면 이 마을이 숨겨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실감을 자아내게 한다. 그래서 「도화원기」와 동일시해 가면서 미화시키고 있다.

경암은 장소성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사색하면서 이 월막의 산수에 반해 폭 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선유동’이다.

仙遊洞 : 원감대에서 서쪽으로 5~60보 쯤 가면 석벽이 있는데 시내를 내려다보는 지점에 문이 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골짜기가 그윽하고 깊으며 평평하다. 주산의 여러 봉우리들이 마치 칼로 다듬은 듯, 붓으로 그린 듯 서 있고 좌우의 봉우리는 읍하고 있는 모습이 단아하고 빼어났다. 시냇물이 빙 돌아 흐르는데 옥류 소리 맑기만 하다. 용룡담·세진담·일출봉·일입봉·자소봉·사세암이 앞뒤에 꼭 늘어서 있는데 이 산의 정령이 모두 다 이 속에 들어 있다. 이곳은 속객이 이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바로 선옹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선유동이라고 한 것이다.⁴⁰⁾

경암은 경관의 극치를 공감각적으로 미화시키면서 경관을 한 묶음으로 엮었다. 그러면서 이곳의 경관을 선경으로 급하게 몰아가고 있다. 경암의 산수유기는 산속에 또 산이 있고, 경치 속에 또 경치가 있으며, 그림 속에 또 그림이 있다. 그는 속세와 선경의 경계를 지으려고 문을 설정한다. 그 문을 들어서면 선경이요 나오면 아니다. 이곳을 주산으로 표현하며 경관을 주와 객의 관점으로 나누고 경관의 또 다른 중심을 이룬다. 이후의 경관에

39) 桃源洞 : 湖南省 桃源山에 있는 桃源洞으로,晉나라 陶淵明의 「桃花源記」에서 나온 말이다. (『陶靖節集』 卷6)

40) 『敬菴先生文集』 卷2, 「月幕山水記」. “仙遊洞○自圓鑑臺西行五六十步, 有石崖臨溪作門. 入其門則洞壑幽邃夷衍. 主山諸峯削立如刀筆, 左右峯巒拱揖端秀. 溪水盤繞, 玉流淙潺. 湧龍潭·洗塵潭·日出峯·日入峯·紫霄峯·謝世巖森羅前後, 一山之精英, 盡在此矣. 非俗客所可到, 乃仙翁所盤旋. 故名之曰仙遊洞.”

대한 장소성은 선유동을 중심으로 경관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그 다음은 ‘사세암’이다.

謝世巖 : 선유동 왼쪽 팔 부분은 바위 절벽이 우뚝 솟아있는데 왼쪽 관문
이 된다. 이 관문으로 들어가면 마치 세속의 지경과는 격리되어 있는 것 같
다. 그래서 사세암이라고 이름한 것이다.⁴¹⁾

사세암은 세속과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붙인 이름이다. 이곳은 선유동을 중심에 놓고 보면 왼쪽 팔 부분에 해당한다. 이곳을 관문으로 경관을 설정하며 상상하고 있다. 그래서 사세암은 이름값을 톡톡히 해낸다. 경암은 산수의 형세를 자주 인체에 비하여 논하고 의인화하여 표현한다. 그의 산수유기는 무생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미감이 살아 숨 쉰다. 그의 산수유기는 문장에 절박한 호흡이 있고 생동감이 넘친다. 그의 산수유기는 심오한 비유와 상징의 수법이 드러나는 인문지리학의 장소성이자 문학의 정수이다.

그 다음은 ‘세진담’이다.

洗塵潭 : 사세암 아래에 못이 있는데 맑고 얇으며 사방과 그 밑은 모두 돌로 이루어져 있다. 좌우의 반석은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고 물밑의 물고기와 자라들을 셀 수 있을 정도이다. 늦봄이나 이른 가을에 황어와 은어가 못에 가득 뛰어놀고 떨어지는 붉은 꽃잎이 날려 햇빛을 가리니 이 고을의 화려함이 여기에서 절정에 달한다. 유람하는 자가 절로 세상의 근심을 잊고 신선의 흥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진담이라고 한 것이다.⁴²⁾

41)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謝世巖○仙遊洞左臂, 石岸屹立作左關. 入是關, 如隔塵界. 故名之曰謝世巖.”

42)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洗塵潭○謝世巖下有潭, 瑩澈清淺, 四面及底皆石. 左右盤石, 足以坐人, 水底魚鼈, 歷歷可數. 春暮秋早, 黃鱗銀脣蔽潭游泳, 落蕊飄紅飛撲掩映, 一洞繁華, 於斯極矣. 遊者自能忘世慮發仙興, 故名之曰洗塵潭.”

세진담은 바위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연못이다. 월막 산수에 등장하는 소들은 거의 모두가 바위와 물살이 역겹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 낸 것이며 자연미의 극치로 기이한 곡선미에 맑은 물빛이 특징이다. 경암의 산수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이것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가 붙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이 기록에는 동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들이 묘하게 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글에 생동감과 생명력이 있다. 그는 이곳에서 정적인 산수 묘사에 동적인 황어와 은어 등 물고기를 묘사하고 있다. 그는 물고기들을 관상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도 생각하며 장차 이 산수 공간에 머무를 것을 상상하며 풍류를 자아낸다. 그는 이곳 월막 산수에 물고기가 많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표현에 등장하는 물고기들은 산천어·쏘가리·황어·은어·자라 등이다. 그의 산수기는 하나의 동국여지승람처럼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는 이 산수에 주자처럼 정사를 짓고 학문을 수양하며 자연미를 감상하고자 한다. 그는 이른바 강호가도를 구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암은 유람하는 자가 절로 세상의 근심을 잊고 신선의 흥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진담’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일출봉’이다.

日出峯：선유동 남쪽 경계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돌로 된 봉우리가 있다. 이 산 정상에 우뚝 솟아나서 해가 그 위로 뜨기 때문에 일출봉이라고 한 것이다.⁴³⁾

이곳은 동해가 가깝지만 돌로 된 산봉우리들이 빙 둘러있어서 이 산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바라 볼 수 있다. 특히 동해가 가까이에 있어서 일출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 선유동 안에서 바라보는 일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이 산수의 장소성 방향이 정해지는 순

43)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日出峯○仙遊洞南案稍東行, 有石峯峻拔山頂, 日出其上, 故名之曰日出峯.”

간이기도 하다.

日入峯：선유동의 주산에서 약간 서쪽에 돌로된 봉우리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데 일출봉과 서로 마주 보고 있다. 해가 그 위로 지기 때문에 일입봉이라고 한 것이다.⁴⁴⁾

선유동을 중심에 두고 주와 객의 시각으로 표현하며 산수의 의경을 일출봉과 대립적인 구도를 이루게 한다. 이 봉우리들의 장소감 담론은 모두 선유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소유주이다.

다음은 ‘자소봉’이다.

紫霄峯：선유동 주산에 깎아지른 듯이 서 있는 봉우리가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 칼과 창 같은 것이 십여 개나 된다. 푸른 하늘 속에 들어가 있는데 기이한 모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소나무와 노송나무가 우거져 햇빛을 가리고 구름과 안개 사이로 보였다가 안보였다 하는데 매우 사랑할 만 하지만 일일이 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고로 통칭하여 자소봉이라고 하였다.⁴⁵⁾

자소봉은 선유동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으로 그 정상에 깎아지른 듯 높이 솟아있는 바위들의 군락이다. 마치 칼과 창들이 하늘을 향해 늘어선 것처럼 십여 개의 바위가 기이한 경관의 위상을 자아내며 경관을 압도한다. 거기에 소나무와 노송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구름과 안개가 바위에 걸려 아름다움을 창출해 낸다. 보였다가 안보였다 하는 신비감이 신선들의 세계인 선유동을 상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래서 신선의 색채인 자

44)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日入峯○仙遊洞主山稍西畔, 有石峯撐空, 與日出峯相對, 日入其上. 故名之曰日入峯.”

45)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紫霄峯○仙遊洞主山石峯削立者不一, 而如刀槍劍戟者十餘. 勢入蒼穹, 奇怪難狀. 松檜掩映, 隱見雲霧間, 儘可愛玩而不可盡名. 故統稱之曰紫霄峯.”

쫓빛과 하늘의 의미를 결합하여 그 바위 숲 전체를 자소봉이라고 의미를 붙였다. 이 의미를 붙이는 순간 비로소 장소가 되었다. 이 부분은 월막산수의 공간감각인 장소감과 입체미를 느낄 수 있는 선유동의 미적 중심이다. 경암의 산수유기에는 주자의 대표적 산수관인 무이산의 인식된 공간과 산수를 유람하며 느끼는 공간 감각이 어우러져 장소성에 대한 표현미를 가증시키고 있다. 그 다음은 ‘용운봉’이다.

聳雲峯：선유동의 오른쪽에 팔 끝부분에 해당한다. 마치 누에의 머리처럼 우뚝히 솟아 오른쪽 관문의 역할을 맡고 있다. 구름이 뭉개뭉개 피어오르면 서 아득하게 출몰하기 때문에 용운봉이라고 한 것이다.⁴⁶⁾

용운봉은 선유동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위치하며 잠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오른쪽 관문으로 구름이 피어오르는 형상에 관점을 두고 용운봉이라고 하였다. 이 용운봉은 관문의 역할을 하며 선유동의 경계를 이룬다. 바위는 정적이고 구름은 동적이다. 경암의 산수 예찬은 미의식이 충만해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공간이더라도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장소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산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 경암의 장소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 다음은 ‘용룡담’이다.

湧龍潭：세진담에서 곧바로 6~70보쯤 거슬러 올라가면 어지럽게 널린 돌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데 눈처럼 새하얗고 깨끗하다. 그곳에 폭포가 떨어져 못을 이루는데 검푸르고 시리도록 맑아 깊이를 예측할 수 없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여러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뛰어 위로 올라오려다가 곧바로 떨어지곤 한다. 산사람이나 나무꾼이 폭포아래에 삼태기를 걸

46) 『敬菴先生文集』 卷2, 「月幕山水記」. “聳雲峯○仙遊洞右臂之末. 蠶頭巋然作右關. 雲煙噴薄, 出沒窅藹, 故名之曰聳雲峯.”

어놓고 물고기가 다니는 입구를 차지하고 앉았으면 더러는 하루에 한 말쯤 잡히기도 한다. 가을에 은빛 물고기가 시냇물에 더욱 가득한데 이 못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반 자나 된다. 속세에서 말하기를 “옛날에 신통이 힘차게 날아올라 간 자리가 못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을 용추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용룡담이라고 한 것이다.⁴⁷⁾

용룡담은 용이 하늘로 올라간 자리가 연못이 되었다는 용추 폭포의 전설을 바탕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 곳에는 폭포가 있다. 그러나 경관의 중심은 폭포가 아니라 맑고 깊은 연못이다. 마치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진흙놀이를 하다 간 것처럼 어지럽게 널려있는 맑고 흰 바위 소품들이 전사회를 연 것 같이 주변에 널려있고 그 위에는 흰 비단 같은 폭포가 끊임없이 물을 쏟아 내리고 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광경이다. 그 속에는 물고기들이 폭포수를 거슬러 오르려다 떨어지며 놀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 폭포에서 물고기 잡는 지혜는 특이하고 재미있어 보인다. 산에 사는 늑은이나 나무꾼들이 경관의 요소로 등장한다. 경암의 산수유기에는 묘하게 인적이 있고 장소감인 정감이 넘친다.

그 다음은 ‘한계암’이다.

寒溪巖 : 용룡담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泉石이 가는 곳마다 깨끗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1리 쯤 가면 두 개의 시내로 갈라지는데 서쪽으로 꺾어지면 한 시내를 두고 좌우와 상하에 기이한 암석이 평평하게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한 번 돌아나가서 하담을 이루고 두 번 돌아 나가서 중담을 이룬다. 중담 위에서 서쪽으로 꺾어져 돌면 용추가 되는데 그 깊이는 십여자나 되고 용추 위로 작은 폭포가 아래로 걸려있다. 용추와 두 개의 못 사이에 맑은 물은 다 바위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한 점의 티끌도 없다. 오른쪽에는 돌로 된

47)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湧龍潭○自洗塵潭直泝六七十步, 亂石錯峙, 皓潔如雪. 有瀑布落而成潭, 黝黑澄碧, 深不可測. 春夏之交, 群魚跳波, 欲上旋墮. 山翁樵夫懸釜瀑底, 坐占鮮口, 或日斛許. 秋節, 銀魚彌滿一溪, 而在此潭者最巨, 大者可半尺. 俗稱昔有神龍奮躍成潭, 仍號龍湫. 故名之曰湧龍潭.”

봉우리가 높이 서 있는데 무려 수십 길이나 되고 푸른 산은 그림과 같으며 노송이 그 위에 어지럽게 서있다. 왼쪽에는 넓은 바위가 평평하고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데 넓이는 일백여자나 되고 곧바로 오른쪽의 푸른 산을 마주보고 서있다. 아래로 용추를 내려다보면 그곳에도 노송 서너 그루가 서있다. 이 계곡이 깊숙하고 고요하며 맑고도 시원하며 이늑하고 깨끗하며 거울처럼 환한 것들을 거의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는 조물주 화공이 환상적으로 솜씨를 부린 것으로써 진실로 은둔하는 군자가 그곳에 정사를 지어 학문하고 수양하기에 참으로 좋을 것 같다. 차가운 시대가 양쪽 절벽 사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회암 노선생의 한천정사를 지은 고사를 모방하여 한계암이라고 한 것이다.⁴⁸⁾

한계암은 주자가 무이산에 한천정사를 지은 고사를 인용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경암의 산수유기 속에는 주자의 무이도가를 의식한 자연관이 인식되어 있다. 퇴계가 『무이지』를 샅샅이 찾아 읽고 주자의 『무이도가』와 무이산의 정황을 완전히 독파했듯이 경암 또한 퇴계와 동시대를 산적이었고 그의 제자 서애 유성룡에게 학문을 수학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무이지』를 독파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무이산에 대한 산수경관을 차경하여 월막의 산수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계암이다. 경암이 이 산수에다가 정사를 짓고 주자처럼 자연을 구가하며 학문을 수양할만한 장소라고 예찬하는 장소성 자체가 곧바로 강호가도이다.

그 다음은 ‘학소암’이다.

48)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寒溪巖○自湧龍潭直上, 泉石無處不清潔. 行一里餘, 兩溪作岐, 西轉一溪左右上下, 奇巖平鋪, 打成一片. 一匯而成下潭, 二匯而爲中潭. 中潭之上, 西折屈曲而爲龍湫, 深可十餘尺, 湫上小瀑懸下. 一湫二潭之間, 澄流皆注巖面, 無一點塵土. 右邊石峯高峙, 無慮數十丈, 翠屏如圖畫, 老松亂立其上. 左邊巖夷爽, 廣袤百餘尺, 直對右邊翠屏. 俯臨湫潭, 亦有老松三四株幽邃寥窅, 敞朗明快, 閑雅簡潔, 虛曠瑩澈, 殆難以言語形容. 畫手幻出, 誠宜隱君子結精舍其中, 藏修頤養. 而有寒溪潺潺兩崖間, 故做晦菴老先生寒泉故事, 名之曰寒溪巖.”

鶴巢巖 : 한계암 서쪽에서 위로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바위가 있는데 너무 높아서 올라 갈 수가 없다. 학이 그 위에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학소암이라고 한 것이다.⁴⁹⁾

이것은 실경이다. 학은 선경에 어울리는 소재이다. 학은 두루미과에 속하는 겨울 철새로 옛날 신선이 타고 다니는 전설상의 학과 동일시되고 있다. 경암의 산수유기에는 실경과 차경이 서로 조화롭게 교차되어 있다. 후세 사람들이 붙인 이름에도 이곳은 학소대라고 부른다. 그런 점에서 학이 실지로 둥지를 틀고 있었던 것을 선경의 학으로 중의하여 경관을 선경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암이 다양한 시각으로 의미를 부여한 이 장소성은 후대에 올바로 전해져서 이름이 불리어져야 한다. 마지막 정착지는 진주암이다.

眞珠巖 : 용릉담에서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 시내가 둘로 갈라지는 지점에 이른다. 서남쪽으로 돌아 시내를 따라 8~90보 쯤 가면 바위가 있는데 크기는 열 아람이나 되고 높이는 6~70길이나 된다. 우뚝하게 시내 가운데에 서있고 만년송이 그 꼭대기에 서있는데 오래된 가지와 앙상한 줄기가 높게 솟아 있으면서 푸르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진주가 그 위에 많이 숨겨져 있는데 만약 올라가서 가져가는 자가 있으면 우레와 번개가 갑자기 일어난다.”고 하였다. 바위에서 서남쪽으로 삼십여 리 쯤 가면 두 개의 골짜기가 있고 시내 중심부에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기암과 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은 감상하거나 놀기에 좋다. 눈을 기쁘게 하고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다가 게다가 다 쓰러져 가는 가게 두세 곳도 깊숙하게 막혀있어서 혼란한 세상을 피할 만하였다. 그래서 세속에서 부르는 그대로 이름을 진주암이라고 한 것이다.⁵⁰⁾

49)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鶴巢巖○自寒溪巖西上, 有斷崖巖然, 高不可攀. 有鶴巢其上, 故名之曰鶴巢巖.”

50) 『敬菴先生文集』卷2, 「月幕山水記」. “眞珠巖○自湧龍潭沿溪以上, 到兩溪岐處. 西南轉從一溪行八九十步, 有巖大可十餘圍, 高可六七丈. 卓立溪中, 萬年松立其

진주암의 명칭은 순전히 전설에 의해 이름을 지은 것이다. 경암은 이 진주암을 마지막으로 이 월막의 장소가 혼란한 세상을 피할만하다는 것으로 월막산수의 유기를 마무리한다. 그의 장소성에는 전설을 동원한 의미부여가 색다르게 다가온다.

그는 1591년 대과에 급제하자마자 임진왜란을 당하여 이곳저곳 피난다니면서 관료로서 전장을 누볐고 전쟁이 끝나가자 당파싸움은 더욱 극렬해지고 광해군의 폭정으로 세상은 더욱 혼란하였다. 그런 가운데도 그의 관료생활은 계속되었다. 그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였다. 게다가 스승이자 처삼촌인 서애 유성룡마저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우고도 복인에 몰려 관직에서 파직되어 돌아오는 참담한 현실이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혼란한 세상을 피해 은둔하고 싶었다. 주자처럼 강호에 묻혀 학문을 연구하고 싶었다. 그는 마침 영해부사로 발령을 받아 이 산수를 유람하며 그의 장소감을 풀어내고 있었다. 그는 이 산수 속에서 살고 싶었다. 그 실제적 사실이 다음의 편지에서 발견된다. 경암은 1609년에 정군섭에게 보낸 편지에서 月幕書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정군섭에게 답함. 己酉(1609년)[答鄭君燮],」

멀리서 안부를 묻는 편지를 받으니 위로되고 감사한 마음이 진실로 깊습니다. 월막의 서사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일을 주관할 중을 만나지 못한 것을 깊이 탄식하고 있었는데 방금 듣게 되니 반드시 기약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형의 편지를 보니 월성의 친구들에게 통문을 보내서 일을 거행시키려 한다고 하니 이것은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닌지요. 이 말세를 당하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 적막한 곳에 몇 칸의 집을 지으려는 것은

頂, 老枝悴幹昂藏而蒼然. 人傳眞珠多貯其上, 若有橋升而取之者, 雷電暴作云. 由巖而西南行, 三十餘里間兩峽東立, 一溪中流, 奇巖之錯列. 瓊液之潺湲, 可玩可遊. 悅目怡神者不知其幾許, 亦有殘店二三處, 幽阻可以避世也. 仍俗號統名之曰眞珠巖.”

우리 형처럼 마음이 통하는 몇몇 사람과 산골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함께 만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해서인데 어찌 외부 사람을 널리 끌어들이 모아야 하겠습니까? 옛날에 조승상이 주부자를 위해 정사를 지어주려고 하자 주자께서 강력하게 저지하여 구설수에 대비하였는데⁵¹⁾ 대현께서 어찌 본 것이 없이 그랬겠습니까? 만약 우리 두 분의 형들(정군섭, 정여섭 형제)이 주선했을 수 있다면 주선했다면 좋겠지만 여력이 없다면 아직 점차 시간을 두고 도모해야 할 것이니 지금 조금하게 외부 인사에게 힘을 빌리는 것은 아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⁵²⁾

이 편지는 1609년에 보낸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정군섭은 여헌 장현광의 제자이다. 장현광은 경암의 외삼촌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외삼촌인 장현광에게 나아가 수업을 받았으며 성장하여서는 서애 유성룡에게 나아가 공부하였다. 정군섭, 정여섭의 형제가 이 당시 문헌에 자주 나온다. 경암은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산수에다가 옥계서당을 지었던 사실의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경암은 영해의 부사직을 그만 둔 후에도 이 장소 월막산수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았고 이 속에 정사를 짓고 살아가는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이 장소 월막산수의 최초의 주인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 「월막산수기」는 산수유기의 걸작으로 주자의 무이구곡을 연상하게

51) 옛날에 …… 대비하였는데 : 趙汝愚는 宋 寧宗 때의 재상이었다. 權臣 韓侂胄는 명재상 韓琦의 증손으로, 모친은 高宗 吳 皇后的 여동생이며, 또 오 황후의 질녀에게 장가들었다. 재상 趙汝愚를 배척하고, 朱熹를 쫓아내면서 理學을 僞學으로 몰아 ‘慶元黨禍’를 일으켰다. 出兵하여 北伐하다가 실패하자 金나라와의 화친을 청하였는데, 끝내는 목이 잘려 金나라에 보내지는 신세가 되었다. (『宋史』 卷474)

52) 『敬菴先生文集』 卷2, 「答鄭君燮」. “獲奉遠問 慰感良深 月幕書舍 此亦掛念 但幹僧難遇 深以爲歎 今方聞見 要以必就爲期耳 第見兄書 欲通文月城知舊舉事云 無乃未之思耶 當此末路 知心有幾 占此寂寞之濱 構得數間屋子 肝膽相照 如吾兄數人 則可以婆娑丘壑 共遣歲暮光陰 豈可廣致外間多人 昔趙丞相欲爲朱夫子作精舍 夫子力止之 以備外言 大賢豈無所見而然耶 若吾兩兄有力可以周旋則周旋 若無力則亦可漸次以圖 今乃急求外人之力 恐或不可也 如何如何.”

하고 후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바탕으로 옥계구곡의 장소성을 탄생시키는 산실이 되었다. 그의 산수유기의 아름답고 사색이 깊은 고결한 표현 속에서 위대한 강호가도를 구가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의 『월막산수기』는 아름다운 산수의 공간에다가 기발한 의미를 부여한 장소성의 확보가 새로운 자연미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인문지리학적 문화가치가 돋보이는 훌륭한 작품이다.

4. 결론

이상으로 경암 노경임의 『월막산수기』를 장소성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그가 월막의 산수에 이름을 지어 불러주자 월막의 산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지금의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과 지리적 물리적 공간이 있더라도 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의미가 붙어야만 비로소 장소라고 할 수 있다는 랠프의 논리는 적중했다.

이러한 인문지리적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영덕의 팔각산과 옥계구곡의 공간과 장소성은 지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무시켜주는 관광자원인 동시에 문화컨텐츠의 보고이다. 경암의 『월막산수기』를 새롭게 조명하는 순간 지금까지 잘못 알려졌던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주면서 장소성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확보되었고 이로 인해 팔각산의 자연미가 새롭게 조명되었다.

경암이 살았던 조선의 16세기는 성리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시기였고 성리학적 문학관이 팽배해져 가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퇴계와 율곡이 주자의 『무이도가』에 심취하여 구곡을 설정하며 강호가도의 자연미를 발견해 가던 시대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 시대는 구곡을 설정하며 조선의 새로운 자연미를 발견하려는 풍조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퇴계의 제자 서애 유성룡에게 찾아가 공부하였던 경암 노경임은 뛰

어난 성리학자이자 문장가로서 그에게도 강호가도의 자연미를 발견해 가는 산수벽이 있었다.

그의 「월막산수기」는 그의 이러한 산수벽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월막 산수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에 위치한 팔각산과 옥계구곡에 대한 기록이다.

경암은 1607년에 영해 부사로 부임하여 1611년까지 5년간 이 지역에 머물면서 이 산수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월막의 아름다운 장소를 골라 곳곳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름을 지어 붙였으며 이 산의 전설과 함께 이 공간의 아름다움을 극찬했다. 이것은 이 산수에 대한 장소성이며 의미를 부여해야만 장소라고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잘 맞는다. 이것은 월막 산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역사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산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여 기록한 수사의 문체에서는 그의 장소성과 문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월막산수기」는 ‘山’ 공간과 ‘水’ 공간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감안하여 다른 산의 기문들이 산만을 강조한 것과 달리 산과 계곡의 아름다움을 대비하여 기록한 점을 들어 ‘산수기’라고 한 것이 독특하다.

그는 월막의 산수 중에서 아름다운 곳을 선정하여 이름을 붙이는 형식으로 이 산수유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는 월막의 산수의 형세를 표현하면서 자주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수법을 활용한다. 그의 산수유기는 무생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독특한 미감이 있으며 성리학적 상상력이 살아 숨 쉰다. 그의 산수유기는 문장에 절박한 호흡이 있고 생동감이 넘친다. 그의 이러한 산수유기는 심오한 비유와 상징의 수법이 드러나는 성리미학의 정수이며 아름답게 묘사한 그의 수사력은 장소에 대한 장소성과 장소감을 드러낸 문학적 표현의 극치이다.

그는 월막의 산수를 묘사하면서 자주 주희의 무이산을 연상하며 표현한 구절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의 산수유기는 높은 곳에서 비스듬히 아

래를 내려다보며 그림을 그리는 부감법처럼 입체적인 묘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의 산수유기 곳곳에 나타나는 이러한 수법의 묘사는 그의 산수유기의 미학적 특징이기도 하다.

경암의 『월막산수기』는 성리미학이 함의되어 철학적이며, 그 묘사가 뛰어나고 문체가 유려하여 문학적이며, 그 유래와 전설들을 포착한 점에서 역사적이고 민족적이다.

그가 월막 산수의 경관을 묘사해낸 공간적 구성은 부감의 수법이 들어있고, 중심을 뚜렷이 처리한 집약적인 화면구도, 대상의 특징을 생략과 강조의 수법으로 진실하게 나타낸 섬세한 세부묘사, 수묵 담채화의 화폭을 의식한 담백한 묘사는 월막 산수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격을 최초로 소개하며 높여 놓았다. 이 산수를 바라보는 경암의 예술적인 시각은 차라리 월막의 산수를 그린 한 권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서화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이 옥계의 산수에 대하여 이렇게 유학적 은거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유람했고, 누가 이 산수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으며 누가 이 산수에 대해 성리학의 오묘하고 철학적인 사색을 하였는가? 이러한 산수유기의 걸작 『월막산수기』는 그가 얼마나 이 산수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절경들을 훌륭하게 묘사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 『월막산수기』의 특징은 회화적이며 문체의 아름다움과 비유가 생동감이 넘치는 데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곧 산이었다. 그의 『월막산수기』의 문예미학에는 묘하게도 성리학적인 형상사유가 저변에 깔려 있다. 경암의 월막산수 묘사에 표현된 문자는 빛과 색의 움직임과 변화가 오묘하게 들어있는 회화적인 언어이다. 경암은 통속적인 산수유기의 도식성을 버리고 이 산수에 대한 솔직한 진경을 감정의 유로대로 묘사한 한편의 진경산수화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수유기는 고서 속에 숨겨진 채로 아직까지 발

견되지 못한 채 이 산수는 다른 이름인 팔각산으로 불리며 이 이름다운 자연미의 발견이 사라져 버렸다. 그야말로 그의 귀중한 장소성이 송두리째 훼손되어 버렸다. 이 『월막산수기』가 영덕의 옥계구곡과 팔각산을 묘사한 것임을 발견한 순간 이것은 바로 논문으로 써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섰다. 이 자연미의 아름다운 발견이 다시금 살아나 이 산수의 미감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민족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창달을 위하여 이 산수유기와 함께 이 산수의 주인 경암 노경임 선생의 『월막산수기』의 장소성에 대한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고 평가되기를 기원하며 이것을 계기로 이 산수유기에 대한 장소의 담론의 지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論語』.

『朝鮮王朝實錄』.

盧景任, 『敬菴先生文集』.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柳重教, 『省齋集』.

許薰, 『舫山先生文集』.

『영덕의 정자』, 사단법인 박약회 영덕지회, 2012.

신두환, 『경암 노경임의 생애와 문학세계』, 『강사문화』 6집, 강사기념사업회, 2020.

조운제, 『조선시가가사강』, 동광당서점, 1939.

홍성희 · 박준서 · 임승빈 『환경계획 및 설계를 위한 장소성 개념 연구-‘Sense of Place’와 ‘Placeness’ 용어 비교 분석』, 『한국경관학회지』 3권 1호, 한국경관학회, 2011.

투고일 2022. 4. 30 심사시작일 2022. 5. 21 게재확정일 2022. 6. 23

Abstract

A Study on the Gyeongam(敬菴) Noh Gyeong-im's
 『The record of Mt. Wolmak's scenery』 and its Sense of Place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Gyeongam(敬菴) Noh Gyeong-im(盧景任, 1569~1620)'s 『The record of Mt. Wolmak's scenery』 and its Sense of Place which lived around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is work is included in his literary collection, and this work was written after visiting Mt. Wolmak's scenery when Gyeongam(敬菴) was appointed as a Yeonghae territorial governor(寧海府使) in June 1607 and worked until 1611. 『The record of Mt. Wolmak's scenery』 is a story written after touring Palgak Mountain and Okgye Valley i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Korea. With the new discovery of this record, the points that were given meaning to the place and named for the first time here and there highlighted its the Sense of Place.

He showed his talent for literature from an early age, and he studied Neo-Confucianism under Yeoheon Jang Hyun-kwang and Seoae Yoo Seong-ryong, but took literature classes whenever he could. Gyeongam Noh Gyeong-im was a bureaucrat and literary scholar who was active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and King Gwanghaegun of the Joseon Dynasty, and he was a Confucian scholar who contributed to reviving and stabilizing Neo-Confucianism after the war.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e went through various government posts, and his literary collection contained several articles written on a field trip. The Neo-Confucianism he studied since he was young had a great influence on his work.

Noh Gyeong-im's literary collection has many works left after touring scenery(山水), and his analysis of 『The record of Mt. Wolmak's scenery』 found that the landscape has excellent and beautiful literary values that cannot be overlooked. His writing style is characterized by his beautiful, simple and generous literary style. Throughout his record of traveling

scenery, the scenery of Ju-hee(朱熹)'s Muigugok(武夷九曲) was recognized, and a Gang-Ho-ga-do(江湖歌道) was found who tried to devote himself to Confucian scholarly learning by enjoying poetry like a Ju-hee(朱熹). Based on the newly discovered 「The record of Mt. Wolmak's scenery」, this paper illuminates the Sense of Place of the Palgak Mountain and Okgyegu Valley in Yeongdeok, Gyeongsangbuk-do, which are emerging as tourist attractions.

Keywords Gyeongam(敬菴) Noh Gyeong-im(盧景任), 「The record of Mt. Wolmak's scenery(月幕山水記)」, the Sense of Place, The Neo-Confucianism, Gang-Ho-ga-do(江湖歌道), Palgak Mountain, Okgye,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Korea.

